



# 이제는 녹색은총으로

## 기후위기 시대, 생태적 전환을 이루는 교회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2:2)

### | 참여교단 · 단체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사회능력환경부  
기독교대한복음교회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서대문)  
기독교한국루터회 | 대한성공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  
한국구세군 | 한국기독교장로회 생태공동체운동본부

### | 문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02-765-1136 www.ncck.or.kr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02-711-8905 www.greenchrist.org

# 목차

인사말	03
환영사	04
환경주간 공동 기도문	05
환경주일 설교문	11
환경주일 예식서	15
환경주일 연합예배 예식서	17
한국교회 탄소중립 선언문	19
환경주일 주제해설	23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캠페인	33
추천도서 및 자료	24

코로나 바이러스-19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19를 하나님의 뜻으로 봅니다. 재앙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의 해석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19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현상이며, 결코 생명을 죽이는 폭력적인 생명체가 아닌데, 인간의 욕망이 자연의 순리 속에 존재하는 코로나를 굳이 문명으로 끌어내어 지금의 암울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한 정점에서 기후 이변과 바이러스의 발현으로 멈추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본이 멈추어 주춤하였습니다.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기교회는 작년 3월 코로나 발병 이후 11월 말 추수감사절 예배를 교인 모두가 교회 마당에서 드린 외에는 지금 까지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발현을 멈추어 돌아 보라는 뜻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를 멈추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2천년 전 인류가 나아가는 길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아 가던 길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다들 무시하고 지나가지만 교회는 그 앞에 멈추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던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듯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돌아가 교회공동체에 속한 것 처럼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19도 우리를 멈추게 하는 초록십자가입니다. 고기교회가 가정예배를 드린 것은 초대교회의 신앙을 돌아보고 교회가 가야할 길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멈추라 함에도 불구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입니다. 돌아보기 위해서 라는 변명으로 인사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헛 옷을 벗어버리고, 우주와 시간 그리고 자연과 함께 인간문명의 한 정점에서 새롭게 기후생태생명평화정의의 옷을 갈아입는 우리서로같이 교회이기를 기도합니다.

안홍택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위원장 / 고기교회)

## “생태적 전환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좁은 문(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마 7:13.14)

코로나 19는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그 기세를 떨치고 있다. 연일 70만 명이 이르는 확진자, 수천에서 수만에 이르는 사망자, 저주받은 인류다. 인류의 거친 파괴를 받아주던 자연도 이젠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나보다. 자신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지구는 그 자체로 생명 덩어리며 하나의 거대한 생명이다. 우리 몸에 병원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체계가 작동하여 일대 전쟁이 일어난다. 열이 나고 아픈 것은 그 증상이다. 지구도 마찬가지다. 지구는 이미 자신을 해치고 있는 존재가 인류임을 알아보았고 인류를 대규모로 학살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자연재해라는 주장이다. 이를 미래학자 생태신학자들이 이어서 주장하고 있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제 지구 생존의 길은 공존이다.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 배려하고 절제하는 길, 환대의 삶이다.

두 종류의 길이 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다. 우린 매 순간 유무의식 중에 길을 정하고 제 길을 걷는다. 아무리 작은 길이라도 처음부터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달팽이가 걷고 고라니가 걷고 이어 심마니가 걷고 등산가가 걷고 장사꾼이 걸어 길이 생긴다.

땅에서 하늘의 길을 걸은 사람, 마지막까지 흔들리면서도 좁은 길을 걸어가 마침내 길이 된 사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말한다. 불편하고 위험하지만 그 종국이 영생인 좁은 길이 있는가 하면 인기가 좋고 편하지만 그 종국이 멸망인 넓은 길이 있으니 영생에 이르는 좁은 길로 가라고 당부한다.

모든 존재는 길 위의 순례자다. 하늘은 땅을 보살피고 땅은 하늘을 지향한다. 땅은 하늘을 모시고 하늘은 땅을 통해 제 일을 실현한다. 천지조화 일심동체다. 우리가 길을 걷지만 때로는 길이 우리를 걷는다. 하늘로 향하는 길, 우리가 걸어야 할 좁은 길이다. 구도자의 길이며 예언자의 길이고 신앙인의 길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좁은 길이 선택 아닌 필수다.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며 거부할 수 없는 길이다. 한마디로 좁은 길은 구원을 주는 생명의 길이며 모두를 살리는 사랑의 길이고 하느님께 이르는 진리의 길이다. 자발적 가난의 길이고 불편하게 사는 길이며 단순 소박한 삶이다. 딱 알맞게 사는 절제의 삶이다.

하지만 좁은 길은 철저히 거부당하고 있다. 그 길을 제창한 예수의 신도들에게조차도 외면당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는 성장주의에 매몰되어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로만 걸어왔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이제 인류는 근본을 고민하고 돌이켜 성찰해야 한다. 오래된 새 길이 있다면 그건 생태영성의 길이다. 지체하였다간 시도도 못해보고 끝날 판이다. 이제 서둘러 길을 전환해야 한다. 넓은 길을 버리지 않고서는 좁은 길을 걸을 수 없다. 이제 넓은 길을 버리는 일부터 시작하여 좁은 길을 걸어보자.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통해 풍요와 사치한 삶을 부끄럽게 하고, 절제의 삶을 통해 소비적 삶을 심판하자.

제38회 환경주일을 맞아 한국교회는 생태적 전환을 선언하고 탄소중립운동을 펼친다. 한국교회가 마지막으로 인류에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생태전환을 통해 지구생명을 살리는 환경선교에 동참하는 일이다. 이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소명이다.

양재성 상임대표(기독교환경운동연대 / 가재울녹색교회 목사)

# 2021년 환경주간 공동기도문

2021년 환경주일 기도주간은

6월 첫째 주일(환경주일)부터 둘째 주일(감리교 환경주일)까지  
한주 간 창조세계와 한국교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 하늘을 위한 기도 (6월 7일/월요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수없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기도를 드리면서도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나의 이기심을 채우고 편안함에 안주하며  
내 영광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해주던 하늘은 어느덧 뿌연 미세먼지로 가득하고  
젯빛 하늘 아래 우리의 한숨마저 깊어져 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와 기업들이 탄소배출 감축에 힘쓰며  
자신의 일상에서 탄소 중립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매일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모습대로  
맑고 파란 하늘을 아름답게 지켜내도록 여기 우리의 손과 발을 내어 드립니다.

창조세계 보전을 위해 쓰임이 피조물의 기쁨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김혜미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집행위원/ 아름다운교회 전도사)

# 산과 들을 위한 기도 (6월 8일/화요일)

거친 파도에 숨 가쁘게 요동치는 부표처럼,  
우리네 삶은 때때로 격랑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길을 찾지 못해 막막할 때면 산을 바라봅니다.

‘스스로 그러하게’ 영접의 시간을 건디었고 본연의 자리를 끝내 지켜낸 산입니다.  
산을 오르면서 찬찬히 우리 삶을 돌아볼 때면 우직한 산은 우리에게 ‘괜찮아’라고 말해줍니다.  
시름을 내려놓고 산을 내려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새 힘을 얻었습니다.

들에서는 갖가지 먹거리가 나옵니다. 들은 우리네 삶을 지탱해주는 원천입니다.  
만약 들이 없다면 사람도 없게 됩니다. 들을 잃어버리면 생존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들이 훼손되면 우리 생명이 오염됩니다.  
우리 몸과 들은 둘이 아닙니다. 들에서 우리 몸이 나왔습니다.  
들에서 나온 것이 우리 몸을 짓습니다. 그래서 들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들에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산을 통하여 주님의 광대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통하여 참 생명의 근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면모를 산에도 남겨두시고,  
주님의 사랑을 들에도 남겨두시어,  
저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걸음 더, 생명 정의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인간의 편의를 위하여 산과 들이 훼손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케이블카가 산과 들을 망가뜨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송전탑 전기 탓에 생태계가 교란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작 편의시설을 위해 생명의 근원을 갉아먹는 어리석은 일이

더 이상 행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돈이 많은 부자가 되려 하기보다, 생명의 풍요로움에 감사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만족하는  
영성이 이 땅 위에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산과 들을 의지하듯,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김지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집행위원/ 향린교회 목사)

## 강과 바다를 위한 기도 (6월 9일/수요일)

생명의 하나님!

지천으로 피어나는 꽃의 계절에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대지에 비를 내리고 생명을 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물은 생명의 시작이고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소서.

지구별의 모든 생명의 젖줄인 물이 대지의 생명을 살리고

강을 타고 흘러 바다를 향하는 순례의 여정을 통해

생명의 물은 바다를 이루고 생명의 순환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강과 바다는 인간의 산업화 이후

많은 물이 공업용수로 사용되어 방류되면서

수질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한 인구증가와 함께 물 사용이 늘어나면서

버려지는 생활용수로 인해 강의 오염은 더욱 심각해지고

바다는 오염된 물과 쓰레기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과 바다를 살려주소서.

하나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저장되어 있는

방사능 오염수 125만 톤의 해양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생명의 바다를 죽음의 바다로 만드는 일을 즉각 중단하게 도와주소서.

생명의 하나님!

물을 둘러싸고 심각해지는 환경훼손과 수질오염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강과 바다를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행동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류순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집행위원/전국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 풀과 나무를 위한 기도 (6월 10일/목요일)

창조주 하나님!

계절로 번지는 녹색의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계심과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심히 지나는 작은 풀 한 포기에도 주께서 깃들여 계심을 고백합니다.

긴 겨울을 견디고 새싹이 움트는 기적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반복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더 큰 경탄으로 채워주셔서 감사도 함께 반복되게 하옵소서.  
꽃과 열매의 때를 지나, 죽고 썩고 먹혀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풀과 나무를 통해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풀과 나무들이 자신의 생을 건강하게 보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작은 생물들과 곤충과 새와 짐승들이  
살아갈 자리를 잃지 않게 하시고  
계속하여 호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탐욕 때문에 풀과 나무들이 살아갈 땅과 조건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땅의 오염과 기후의 변화에 사람보다 먼저 신음하는 풀과 나무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필요를 따라 수단과 값으로만 바라보며 풀과 나무를 병들고 죽게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조건을 스스로 해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식물과 식물을 먹은 동물을 먹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미안함과 고마움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식물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풀과 나무가 우리를 지켜오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던 것들을  
사람의 우매함과 탐욕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김국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집행위원/ 산돌학교 교목)



## 동물들을 위한 기도 (6월 11일/금요일)

생명 대 생명이 죽음을 공유하며  
질서 안에 있을 때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의 욕망으로 학살되고  
남용되어질 때 세상은 위태롭고 추합니다.

인간은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다른 종의 모든 생명은 소비재이며 재산일 뿐입니다.  
숲도 바다도 들도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엔 부족하기만 합니다.

동료의 죽음에 허둥대는 코끼리  
어미를 찾아 헤메는 바다 돌고래  
새끼의 죽음을 메달고 다니는 오랑우탄  
슬픔을 아는 듯 주어진 삶을 끌어안고 죽음을 바라보는 모습이 처연합니다.

코로나로 집안에만 있다고 투덜대는 우리들은  
평생을 닭장과 돼지우리, 소사육장에서 컸다 앉았다만 반복하다가  
밥상위의 죽음으로 바뀐 처참함을 외면한 채 그저 입맛만 다실뿐입니다.

그렇게 먹어대는 인간들이 경제 논리로 더 증가되어야 한답니다.  
당신이 주신 에텐은 현재까지 지구가 유일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천적인 지구촌의 동물 중 인간, 무섭고 두렵습니다.

인간 탐욕 주머니의 돈으로 바뀐 생명들을 애도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목상의 시간들을, 교정의 시간들을 준 것임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우리가 훼손한 생명들과 화해하게 하소서

생명 대 생명이 죽음을 공유하며  
당신이 부여한 질서 속에 있을 때만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강민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집행위원/동송교회 집사)

## 생태적 삶을 위한 기도 (6월 12일/토요일)

주님, 이미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소유 욕망을 멈추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소서.

내 손에 쥘 것을 소중히 품고 나누기보다,  
결눈질로 타인과 비교하며 불만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남용과  
지나친 욕심에서 왔음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부러움 없이 소비하고,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악에서 돌아서게 하소서.

무한경쟁에서 패배자로 낙인찍혀 고통 받는 이웃들과 생태계 파괴로 신음하는  
피조세계를 향해 손 내미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모든 거짓된 욕망을 버리고,  
배설물만 가득 남기는 소비사회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순환하며 정화되는 자연의 이치가 진리임을 깨닫게 하소서.

이웃, 자연과 더불어 공생하는 삶이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이끄는 지속가능한 삶을 알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공동체의 삶을 깊이 고민하고,  
자연과 이웃의 고통에 함께 하는 사랑의 길에 앞장서게 하소서.

기후재난으로 삶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쓰러지는  
이 땅의 약자들을 기억하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준표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집행위원장/ 손잡는교회 목사)

#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인영남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부위원장/ 효동교회)

시편 104:24-33

- 24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 25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 26 그 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니이다
- 27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 28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 29 주께서 낮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 30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 31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 32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 33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로마서 12:2

-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은 서른 여덟 번째를 맞는 환경주일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기념 주일이 있지만 우리가 왜 환경 주일을 지켜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올해로 서른 여덟 번째로 지키게 되는것이니 그 시작은 거슬러 올라가면 1984년에 처음으로 환경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가 약 130년 된 것을 생각하면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며 예배 드리는 시간이 대략 언제부터인지 가늠하게 됩니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 환경회의” 개최를 기념하여 6월 5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지구>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 114개국 대표가 참가한 이 회의에서 현재 지구환경논의의 기본헌장이 된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유엔 내 환경전문기구 설치, 환경의 날 제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땅에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함께 고민하게 된 것이 현대 산업화 이후이고, 지금으로부터 약 50여년전이라 생각됩니다.

인간의 욕심은 환경도 지키면서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수는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생명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 하십니다. 좁은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편안함의 대부분은 환경을 파괴한 결과로 얻는 것입니다. 생활이 조금 불편하면 할수록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그 생명의 흐름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 보전은 한 마디로 좁은길로 가는 것이고,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환경 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환경보전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한 말씀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쓴 시인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녹색평론 선집에 소개되었던 글을 소개합니다. 1854년, 미합중국대통령 피어스에 의해 파견된 백인 대표자들이 이 인디언 부족인 두아미쉬-수쿠아미쉬족에게 전통적으로 살아온 땅을 팔 것을 제안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의 워싱턴주에 해당하는 이 지역 토착민들의 삶을 차지하는 대신에 그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보존지구

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백인정부의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에 그 부족의 추장인 시애틀이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아침 햇살 앞에서 산안개가 달아나듯이 홍인은 백인 앞에서 언제나 뒤로 물러났었지만 우리 조상들의 유골은 신성한 것이고 그들의 무덤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이 언덕, 이 나무, 이 땅덩어리는 우리에게 신성한 것이다. 백인이 우리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백인에게는 땅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똑같다. 그는 한밤중에 와서는 필요한 것을 빼앗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이다. 땅은 그에게 형제가 아니라 적이며, 그것을 모두 정복했을 때 그는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간다. 백인은 거리낌없이 아버지의 무덤을 내팽개치는가 하면 아이들에게서 땅을 빼앗고도 개의치 않는다. 아버지의 무덤과 아이들의 타고난 권리는 잊혀지고 만다. 백인은 어머니인 대지와 형제인 저 하늘을 마치 양이나 목걸이처럼 사고 약탈하고 팔 수 있는 것으로 대한다. 백인의 식욕은 땅을 삼켜버리고 오직 사막만을 남겨놓을 것이다.”

이 시애틀 추장의 연설문에 감동한 대통령이 그곳의 이름을 시애틀이라 명명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동안 탐욕에 열려져 땅을 삼켜버리고 마지막에는 사막만을 남겨 놓을 것이라 말하는 시애틀 추장의 경고를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며 반성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잘 관리하라는 사명을 받은

하늘 백성들은 그 사명이 엄중함을 생각하며, 받은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땅을 어머니로, 아름다운 꽃을 자매로, 사슴, 말, 큰 독수리를 형제들로 생각하며, 바위산 꼭대기, 풀의 수액, 조랑말 등 모두가 한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진 인디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는 모습입니다.

서른 여덟 번째 환경주일을 맞이해 함께 모인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을 생각하며 그 삶에 충실하기 위해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삶이며 그것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금년은 파리기후협약의 발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감축을 위해 실천하는 첫해입니다. 이를 위해 각 나라에서는 저마다 목표치를 제시하며 실천 방안 목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독교 환경단체와 NCKK 생명문화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은 의식주 기본 생활을 비롯해 교통과 에너지, 문화, 경제 등 삶의 7개 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 쉽게 버리고 쉽게 새로 구입하는 생화 문화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로 함께 걷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입니다. 바울 선생님의 권면 말씀처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캠페인이나 선언도,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위해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까달아야 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즉 세상의 모든 탐욕과 욕망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래전 저는 호주 브르더호프 공동체의 관계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브르더호프 공동체는 개신교 공동체 중에서 제법 역사도 있고 가장 모범적으로 공동체를 운영하는 곳으로 전 세계에 걸쳐

여러 군데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브르더호프 관계자와의 대화 속에서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자신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공동체 삶을 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포기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기로 하고 함께한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억누르기 위해 날마다 날마다 자기를 포기하고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메아리쳐 울립니다.

우리는 지난번 NCKK 2차 실행위원회에서 “기후 위기 비상행동 10년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과잉생산, 과잉소비, 과잉폐기의 악순환 속에서 자연의 생명을 착취한 결과 인류 공멸의 기후위기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이 일에 참여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이 걸음에 동참해서 위기 앞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우리 후대가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일에 함께 마음 모으기를 소망합니다.



# 2021년 환경주일 예식서

## (폐제 기도문)

### ✧ 묵상노래

주님을 찬양하라 (Laudate omnes gentes)

(시편 104, 24-30 + 할렐루야 7)

- 주님,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워야단도 그 속에서 놀입니다.
-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 합니다.
-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 ✧ 묵상노래

찬미하여라 (Bless the Lord)

### ✧ 성경봉독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8, 19-22)

## ✦ 묵상노래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Bleibet hier)

## ✦ 침묵

## ✦ 중보 기도 + Kyrie 1

- 1)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은 우주 안에 현존하시며 당신의 가장 작은 피조물 가운데도 계시오니, 존재하는 모든 것을 주님의 다정함으로 감싸 주소서.
- 2)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의료진과 연구자들을 기억하시고 경제 선진국들이 가난한 나라와 백신을 나눌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이끌어 주소서.
- 3) 세계 여러 곳에서 열대 우림의 파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원주민들과 물의 부족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또 그들 곁에서 일하는 모든 활동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4) 기후 위기의 해결을 위해 애쓰는 연구자들과 활동가들, 이 분야에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하는 모든 이들, 특별히 젊은이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 5)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무분별한 소비와 일회용품의 사용을 피하면서 더 깨어 있고 사려깊은 소비자가 되도록, 또 교회 공동체가 여기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 주기도문

## ✦ 마침 기도 (혹은 축도)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당신 안에 머물 때 창조 세계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당신 자비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물의 가치를 거듭 새로이 발견하면서 창조 질서를 보전하고 인류 가족 안에서 평화를 간직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 ✦ 묵상노래

내 영혼이 (Magnificat-canon)  
 주 찬양하여라 (Laudate dominum)  
 사랑의 나눔 (Ubi caritas)

### [예배안 설명]

- 본 예배 기도문은 프랑스 떼제 공동체 신한열 수사님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 노래 제목은 신앙과 지성사의 '함께 부르는 떼제 찬양'을 참조하였습니다.
- 위 찬양 집에는 떼제기도 준비와 진행에 관한 설명과 안내도 실려 있습니다.



# 제38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예식서

🍃 **여는 찬송** /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 다함께

인도자 :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녹색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창조세계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다함께 :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녹색은총을 힘입어 온 생명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는  
생명살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멘

🍃 **찬송** / 477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 다함께

**생명살림의 기도** / 말은이

**찬송** / 631장 우리 기도를 / 다함께

**말씀봉독** / 로마서 12장 2절 / 말은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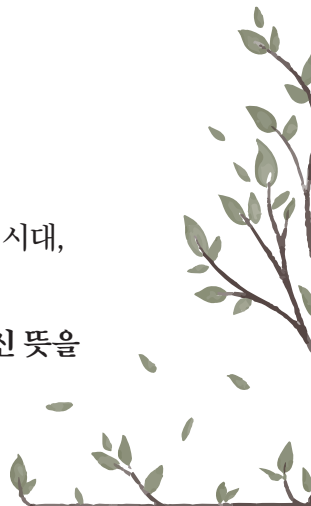
**설교** /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 말은이

**공동기도** / 다함께

🍃 **파송의 말씀** / 다함께

인도자 :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녹색은총을 힘입어 기후위기 시대,  
생태적 전환을 이루는 이 귀한 사역에 앞장서십시오.

다함께 :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생태적 전환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아멘



파송의 찬송 / 부르신 뜻을 사는 우리 / 다함께

♩ = 80 류형선 작사작곡

*mp* D G/D A/D D G D/F# Em7 A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뜻한 오감을 나누며

Bm F#m G D/F# Em C/E Asus4 A

그 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D Gm/D D F#7 Bm G D/F# Em7 A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 뒤를 따르게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든 이 땅을 고쳐 주소서

Bm F#m G D/F# Em G Asus4 A 6-7 *mf*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그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 주소서

D A/C# Bm F#m7 *f*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우리교

G D/F# Em9 Em7/A

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

1. G(add9)/D 2. G(add9)/D D *mp*

리 리

축복기도 / 말은이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탄소중립 선언문

수많은 전문가들이 10년 이내에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생태계의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부분의 생물 종들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도 보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류 스스로가 자초한 기후위기에 직면하여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들을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기독교교회의 목소리를 모아 절박한 심정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행동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고백: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의지하며 온 마음을 다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생태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자유의 하나님께서 인류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태계가 그러하듯이 우리 인간도 형제자매 피조물들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기적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형제자매 피조물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므로 창조세계를 보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 참회: 우리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보전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기후위기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하나님과 국민 앞에서 깊이 반성하고 참회합니다. 지구생태계 파괴와 피조물의 희생을 담보로 얻은 경제발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며 기복신앙에 취한 채 영혼구원만을 강조하고 이 땅의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보전하는 일에는 무관심했던 지난날의 죄악을 참회합니다.

### 진실: 우리는 기후위기의 진실을 직시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당대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적 모범을 따라 다시 돌이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합니다. 자연을 희생시켜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시스템과 인류의 과도한 개발과 과소비로 인한 기후위기는 지구생태계와 인류사회 모두를 위기에 빠뜨린 당면한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탄소중립 선언문

현실입니다. 전 세계에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또한 인류의 과도한 탐욕으로 인해 야생동물의 주거지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지구생태계와 인류사회 보존을 위해 온실기체 감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소비자와 시민사회는 온실기체 감축을 위해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고 적절한 소비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 합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산업정책, 기업의 상품생산과 판매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2020년 9월 국회가 통과시킨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문’과 2020년 10월 정부가 천명한 ‘2050년 탄소중립’을 환영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실기체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기후위기 준비를 미루자는 목소리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온실기체를 만들어내지 않는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늦어질수록 한국의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최근 미국과 EU가 주축이 되어 논의하고 있는 탄소국경세금제도가 도입되면 한국은 미국, EU, 중국과의 교역을 위해서만 2023년에는 6,100억 원, 2030년에는 1조 8,700억 원에 달하는 탄소국경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요구: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요구합니다.

우리는 공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자 한국시민사회의 일원으로 기후위기 극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 국회, 기업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고 온실기체 감축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정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생명을 파괴하는 경제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제시하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기후약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신 기후 세계체제에 새로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기업이 거국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석탄발전소 중지, 내연기관차 금지 등의 조치와 함께 자연재생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신속히 결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기업들은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이 기업의 생존에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온실기체를 감축하는 생산 유통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탄소중립 선언문

**결단: 우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결단합니다.**

우리는 한국기독교를 대표하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행동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기후위기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각 교단과 지역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기후위기 비상행동 플랫폼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목회 매뉴얼을 개발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생활과 일상생활, 사회조직 속에서 탄소 저감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세계교회와 함께 정의, 평화, 창조의 보전(JPIC)이라는 에큐메니칼 신앙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연구자, 신학자, 기독교시민운동그룹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우리는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보전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중요한 선교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구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위해 출범한 <기후위기 기독교 신학포럼>과 <생태정의아카데미>와 연대하여 국내 기독교대학교 및 신학대학교에서 기후위기사대를 이끌어 갈 다음 세대 양성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0일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탄소중립 선언문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이경호

총무 이홍정

### 회원교회 교단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정호 총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한국기독교장로회 이건희 총회장

구세군한국군국 장만희 사령관

대한성공회 이경호 의장주교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장미선 총회장

한국정교회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유영희 총회장

기독교한국루터회 김은섭 총회장

### 회원연합기관 대표

기독교방송(CBS) 한용길

대한기독교서회(CLS) 서진한 사장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KSCF) 채수일 이사장

한국YMCA 전국연맹 송인동 이사장

한국YWCA 연합회 원영희 회장

##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언의 신학적 의미

송진순 (이화여자대학교 외래교수)

### 1. 2050 탄소중립 선언의 배경

지난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본 선언은 정부의 주도적 정책 선언만은 아니다. 한 달 전인 9월 2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는 시민사회, 기초지자체, 국회가 공동으로 요구한 것으로 이러한 요청에 대통령이 응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기후변화가 위기를 넘어 재앙으로 다가오면서 국회는 현재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과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적 불평등 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방안을 골자로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에서 10월 선언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 임기 내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기틀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sup>1)</sup> 지난 7월에 발표된 한국판 그린 뉴딜에 이은 탄소중립 선언에 대해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들은 환영했으나, 정부 정책의 방안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중론이다.<sup>2)</sup>

그렇다면 탄소중립(Carbon neutral)이란 무엇이며 구체적 실현 방안은 어떻게 시행되는가? 탄소중립은 말 그대로 인간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남은 배출량은 흡수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영(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때 이산화탄소는 산림을 통해 흡수되거나,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을 통해 제거되는데, 이렇듯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이 Zero라는 의미에서 탄소중립은 넷-제로(net-zero)라고 불린다. 흔히 넷제로와 탄소중립이 혼재되어 사용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IPCC에서 말하는 넷제로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모든 온실가스의 순증 배출을 제로화한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후중립(climate-neutral)은 탄소중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기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sup>3)</sup>

사실 EU는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통해 세계 최초로 넷 제로를 선언했고, 온실가스 배출량 최대국인 중국은 9월 23일에, 일본은 9월 26일에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미국은 지난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Agreement)에 복귀하면서, 바이든은 집권 4년 동안 2조 달러를 투자하여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조성하고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2035년까지 친환경 에너지 100% 전환과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선언했다.

1)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1416375381056>.

<http://www.kham.kr/news/article.html?no=14635>

2) 탄소 감축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미흡하고 기술중심의 구조 전환은 일자리를 박탈당하고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배려없는 방안이나 분산 시민 주도형의 전환 정책에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다수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416>.

3) 스마트에코 김익, 『국내IP환경동향보고』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2021.

세계적으로는 70여 개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120개 국가가 '탄소제로' 국제동맹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2050년까지 넷제로를 선언한 배경에는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유엔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 제안한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가 있다. IPCC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여야 한다고 보고했다. 한편, 2°C 목표 달성 경로의 경우,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약 25% 감축해야 하며, 207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sup>4)</sup> 평균 온도 0.5°C 상승은 인류에 가공할만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전망도 놓치지 않았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지구 온도 상승이 임계치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상기후와 동식물의 멸종은 환경 파괴만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불평등의 심화, 심각한 안보 갈등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과를 포함하는 것이다.

## 2. 탄소중립을 위한 해법 및 의미

국가별로 제시한 넷제로를 향한 해법은 통상적으로 10가지로 요약된다: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청정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투자, 건축물 개축, 소재의 탈탄소화,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 대중교통 증가, 항공과 해운의 탈탄소화, 산림복원, 음식물 폐기물 및 쓰레기 감량, 육식감량 및 채식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12월에 발표된 2050 탄소중립 비전에 따르면,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의 동시 달성을 목표로, 1. 경제구조 저탄소화, 2.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3.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과 4.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을 시행하면서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중핵과제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넷제로의 핵심은 탈산소사회로의 에너지 전환만큼이나 그간 불평등한 구조에서 배제된 이들을 포용하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점 역시 놓쳐서는 안될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서두른 데는 기후변화라는 물리적인 위험만 있는 것은 아니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 이후 전 세계적으로 탄소규제 무역 장벽이 현실화 되면서 실질적으로 투자 및 금융기관들의 ESG(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압박이 커진 영향이 크다. 기업의 가치평가는 더 이상 전통적인 방식의 재무 성과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윤 추구과 사회적 책임을 달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업을 이룩하겠다는 의미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의 탄소중립비전과 한국 기업의 대응은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과정임에는 틀림없다. 한국은 2019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7억 280만톤을 기록하면서 세계적으로 Co2 배출로는 9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있어서 여전히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의 경제 구조상 수출주도형 경제가 주류를 이루는

4) 기상청 기후정책과, 「지구온난화 1.5도 SPM 주요 내용」 2018.10.



상황에서 미국의 애플을 비롯하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케아, 스타벅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RE100(Renewable Energy 100)에 가입하면서 납품업체와 관련 무역업체와도 제품 공급망과 제품 생애주기에 있어서 케를 같이 해야 한다는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 이런 정세에서 SK 그룹과 한화큐셀 등 한국 기업들은 RE100에 가입하거나 신속하게 ESG 기업경영 원칙을 수용하고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전환 과정은 기후재앙이라는 필연적 생존 요청에 응답하면서도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과 투자라는 피할 수 없는 기업 생태계의 국제 정세의 압박이 큰 몫으로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기후변화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시스템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징후이다. 화석연료가 인류 문명을 단시간에 혁명적으로 발전시켰지만, 탄소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 구조는 지구 자연을 파괴하고 인류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넷제로 실현을 통한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을 밟아가지만, 오랜 시간 인류의 체질이 된 탄소사회의 자본주의 문명에서 벗어나 생태문명으로 전환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 기술혁신, 의식 구조 등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전반이 총체적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유진 박사(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는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의 핵심이 에너지 전환, 즉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전력산업의 발전 방향을 “탈탄소, 분산화, 디지털화, 소비감소, 탈중개화”(decarbonization, decentralization, digitization, decreasing consumption and disintermediation)라는 5가지 방안을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탄소 중립 사회를 마현할 수 있는 법안과 제도 확충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부문별 책임 주체와 쌍방향의 온라인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에 주목했다. 그린뉴딜과 에너지 전환은 중앙통제방식이 아니라 지역 기반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 구조 내 돌봄을 회복하고, 시민 각자가 에너지 생산과 소비와 관리의 주체가 되는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sup>5)</sup>

### 3. 탄소중립 사회의 신학적 의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인간과 자연을 비롯한 전지구적 문명을 잠식 하였다.<sup>6)</sup> 효율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인간중심주의와 성장주의, 각자도생의 삶의 방식, 그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문명이 인류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탈탄소사회,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은 단지 삶의 안전과 환경 문제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에너지 자원이나 기술 변화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이는 환경위기와 경제 체제의 붕괴를 넘어 인류 생존권과 기본권의 위협, 전쟁과 분쟁, 나아가 에너지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부정의(不正義)를 포함하는

5) 이유진, “그린뉴딜 정책 전망과 지역사회 실행방안,” <사회혁신과 그린뉴딜 포럼> 2020.12.1.

6) 신자유주의 경제가 낳은 심각한 양극화, 부의 편중과 사회적 불평등 등 약탈적 경제의 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이다. 다만 경제사학자 칼 폴라니는 시장본위의 자본주의 체계가 얼마나 허구적 토대 위에 있는지를 밝히면서 현재 사회가 경제 체제에 파묻혀있는(embedded) 상황은 역사에서 전적으로 새로운 상황이라고 말한다. 칼 폴라니,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 홍기빈 역 (서울: 책세상, 2008), 27-31.

것이다.<sup>7)</sup> 작금에 추진되는 그린뉴딜의 에너지 전환은 기존의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대규모의 중앙집중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에너지 체제’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 소비 감소는 물론 수요관리에 집중하는 ‘소규모의 지역 분산적이며 시민참여적인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sup>8)</sup>

인간 활동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를 전환한다는 것은 인간 삶을 포함한 사회 체제의 전환과 그 맥을 같이한다. 이것은 기존의 중앙집권적 에너지 체제에서 수동적 소비자에 불과한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시민 각자가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주체로 서되 공유하고 나누는 행동 양식의 전환을 통해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와 지구 생태계를 살려내는 길을 모색하는 움직임인 것이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신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구현할 수 있는가? 첫째, 아가페 프로세스에서 제안한 “생명경제” 사상에 비추어 볼 수 있다. 일찍이 WCC는 신자유주의 경제 세계화가 낳은 부정의와 불평등을 직시하면서 “민중과 지구를 위한 대안적 세계화”(Alternative Globalization addressing People and Earth(AGAPE))라는 개념의 아가페 프로세스를 제안했다.<sup>9)</sup> 세계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의 공동체이자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창조신학과 아프리카 영성인 ‘우분투’(ubuntu, “너는 내 운명”) 사상에 근거하여 생명을 관계적 존재로 규정한다. 생명경제 사상의 핵심은 이 세계가 하나님의 생명살림이 펼쳐지는 장이기에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빛어지는 인간과 생명의 노예화, 불의하고 불공정한 사회와 약탈적 지배체제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동시에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없는 사랑에 기대어 생명 경제로의 철저한 회개(메타노이아)를 요청한다. 생명경제 사상에서는 가난한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상호협력과 상호연대라는 공공선 추구하며, 노동, 지식, 창조성이 자본을 대체하여 경제 활동을 주도하고, 개인 공동체 국가들이 협력하는 세계 경제를 비전으로 삼는다.<sup>10)</sup> 이렇게 볼 때 탄소중립에 기반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이 탈인간중심주의에 대한 성찰 및 생명에 대한 재정의에서 비롯된 것은 물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정의로운 관계 회복이라는 점에서 그 신학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서적으로는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복음서에 나타난 살림의 경제를 통해 그 신학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겠다. 대규모 중앙집권적 에너지 체제는 공급지향적 전력 수급방식으로

7) 이강준, “박원순 서울시장의 에너지정치와 시민참여 거버넌스,” 『경제와 사회』 107(2015), 141-43. 기후변화의 영향은 해당 국가의 지리적 위치나 대응 역량에 따라 커다란 편차를 보인다. 특히 같은 지역에서도 저소득층, 농민, 노동자, 토착민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된다. 생활 공간이 소멸되거나 생존에 필요한 생산 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여도는 매우 낮다. 요컨대, 기후변화는 분명한 현상이고, 그 원인은 인간 활동, 특히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에 기인하고, 에너지소비의 대부분은 도시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심각한 생존권적 위협이 된다. 따라서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8) 윤순진,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를 통해 본 에너지전환 가능성,” <도시에너지포럼> 자료집 2017.9.5.

9) WCC는 1998년부터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불의와 불평등을 직시하면서 체제 비판을 넘어 공의와 연대의 신학적 개념을 마련했다. 2006년 아가페 부름(AGAPE Call)은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에서, 생명경제라는 신학적 개념은 2013년에 최종 제안되었다. 신익상, “포스트 휴먼시대, 한국적 생명경제를 상상하다,” 『에너지 전환과 햇빛발전소 이야기』, 서울: 동연, 2018.

10) AGAPE BD, 4-7.

정부와 전문가가 주도하는 하향식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전력공급과 정책과정에서 국민들의 소리는 소외되었고, 모든 에너지원과 관련 정보는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대부분 도시 에너지원은 서해안에 밀집된 대형 화력발전단지나 경북 해안가의 원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원거리로 수송하는 방식을 통해 대량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전력 체계는 도시가 지방을, 중심이 주변을 식민지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주변에서 생산된 모든 에너지는 초고압 송전탑을 통해 중심부로 빨려 들어오도록 설계되었다. 에너지가 생산되고 유통, 소비되는 방식은 일방적이고 착취적이고 수탈적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속성이 그러하듯, 에너지의 생산과 분배 및 소비 과정은 경제체제 내 은폐된 식민화의 과정으로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경제구조가 내포한 지속불가능하고 부정의한 구조에서 지속가능하고 개방적인 정의로운 구조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에너지원에 대한 전환과 인간 노동과 삶이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방식이 전환이라는 거버넌스적 접근을 요청한다. 이 점에서 소규모의 지역 분산적, 시민참여적인 경제 구조로의 전환은 국민의 지지와 사회적 수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적 방식의 에너지 정책에 기반하게 되는 것이다. 생태문명으로서의 전환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가져 온 지역 불균형, 양극화, 부정의한 지배구조를 극복하고 탈성장 시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인간과 지구 생태계를 위한 변환점이 되는 것이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언과 가르침은 유대 민중이 당면한 경제적 수탈과 공동체의 와해라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 주체로서의 새로운 결단과 함께 서로 연대하고 돌봄으로 공동체의 자립과 재건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은 지배와 피지배라는 불평등한 관계, 도시와 지역, 중심과 주변이라는 대립과 분열을 넘어서게 하는 주님의 은혜의 해에 대한 선포였다(눅 4:18-19). 이는 자생적인 촌락 공동체 안에서 이뤄지는 상호 호혜정신에 입각한 이스라엘 민족의 갱신 운동으로서 예수가 전하는 살림의 동력이었다. 그의 선포는 자유로운 주의 영, 주의 숨, 주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 한 사람, 혹은 피조물 하나하나에게 기름 붓고 그들과 함께하는 환대와 초대였다. 예수가 전하는 살림은 누구에게나 열린 평등한 참여와 연대 그리고 기쁨으로 열어나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서 로마 제국의 위계적, 수탈적 지배 질서에 맞서는 평등과 자유에 기반한 새로운 질서에 대한 비전이자 새로운 삶에 대한 움직임이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지배와 착취를 기반으로 한 팍스 로마나(Pax Romana)의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정의와 다스림에 기반한 다른 삶에 대한 희망의 소식이었다.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으로의 이행 과정은 팍스 이코노미카(Pax Economica)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주체적이고 참여적인 삶의 전환을 요청함으로써 예수가 말하는 새로운 삶의 비전을 상상하게 한다.

## 한국 교회 2050 탄소중립 선언의 교회의 과제

녹색교회 네트워크 / 박용권 목사(봉원교회)

### 녹색교회, 기후위기 녹색교회 비상행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2006년부터 해마다 녹색교회를 선정하고 있다. 2018년 5월에는 그동안 선정된 녹색교회들이 '녹색교회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현재 예장 통합, 기감, 기장, 성공회, 복음교회,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독립교단 등 여러 교단의 80 교회가 녹색교회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창조세계의 보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2020년 5월에는 녹색교회 네트워크의 회원교회들이 '기후위기 녹색교회 비상행동'을 시작하였다.

### 기후 위기 시대를 사는 교회의 신앙고백

'녹색교회 네트워크'와 '녹색교회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교회들의 신앙고백의 산물이다. 오늘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교회는 무엇인가?', 목회자는 누구이며, 목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창조세계의 보전을 위해 녹색교회들이 힘을 모으고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시작한 것은 바로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신앙적인 응답, 신앙고백이다.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선언에 한국교회가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정부 정책에 대한 호응이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선언은 정부가 발표했다는 것 자체로 한계가 있다. 정부의 탄소중립선언은 무엇보다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현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람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경제를 계속 성장시키면 창조세계는 계속 망가지고 기후위기는 심화되어 지구생명공동체는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정부나 기업은 그동안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켜왔다. 그들이 그동안 추구한 방식을 쉽게 버리지 못할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교회가 탄소중립선언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맘몬), 십자가와 영광,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신앙적으로 응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재물을 버리는 것, 십자가를 선택하고 영광을 버리는 것이 우리 인류를 포함한 지구생명공동체를 살리는 근원적인 해결책이다.

###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지난 해 5월 녹색교회네트워크는 기후위기 녹색교회 비상행동을 시작하며 녹색교회들과 함께 '회개합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알리겠습니다.'라는 세 가지 선언을 하였다. 녹색교회들이 앞장서서 이 세 가지 선언을 따라서 살고, 다른 교회들을 이러한 삶으로 초청하고자 한다. 이 세 가지 선언을 따라 사는 것이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 I. 회개 (새로운 삶의 방식 찾기)

우리 시대의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를 초래한 원인은 사람의 기술 부족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과 죄이다. 지구생명공동체가 위협에 빠진 것은 우리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욕망에 빠져 창조세계를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삼고 마음껏 소비하고 파괴하였다. 이것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회개를 요구한다. 이 요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요한복음 10:10) 교회가 공인한 가장 오래된 신조인 니케아-콘스탄티노플신조는 성령 하나님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였다. 생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물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다. 생명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

회개는 우리 공동체의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 회개하지 않고 현재 우리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곧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을 이미 겪고 있고, 또한 이것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고 있다. 내연기관 승용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것처럼 탄소를 내뿜는 현재의 방식의 삶을 고집하면 인류 공동체의 미래도 없다.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세대 안에 지구생명공동체에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 회개 운동

구약 시대에 많은 예언자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왕과 사람들의 죄악을 책망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 경고대로 나라는 망했고, 사람들은 망한 이후에야 비로소 나라가 망한 이유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이미 우리 눈앞에 닥쳤고,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먼저 자신의 잘못을 먼저 고백해야 한다. 경쟁적으로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자랑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도록 부추긴 죄를 회개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세계의 청지기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지기 역할은 커녕 창조세계를 더럽히고 파괴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회개해야 한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보다 재물과 경제성장을 앞세우며 불의를 행하고 창조세계를 망가뜨린 사람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신격화하는 정부와 기업은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기관들이다.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과제이다.

구한말 나라가 망해갈 때 교회가 앞장서서 회개운동을 하였고 그것이 교회 대부흥으로 이어졌고, 또한 망해가는 나라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교회가 회개하고 물질적인 욕망에서 자유롭게 되어 창조세계를 보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때,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

## II. 실천 (경건과 가난)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소비하느냐에 따라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좋은 물건, 비싼 물건,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그럴듯하게 보인다. 좋은 물건이나 좋은 서비스를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으로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자기 자신을 물건과 일치시키는 것이요 자기 영혼까지 끌어다가 물건을 소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소위 ‘영끌’ 소비 시대에 경건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 없이 크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라야 물건의 소비에서 자유롭게 되고 자신이 소비되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물건을 소비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경건 생활은 우리를 가난으로 인도한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나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 부자가 되려고 애쓰고 또한 경쟁적으로 소비하는 과정에서 지구 환경은 나날이 더러워지고 악화된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기에 이런 지구가 여러 개 있어도 사람의 욕심을 다 채워줄 수 없다. 소비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 지구와 후손의 미래는 없다. 그러므로 가난하게 살며 소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에서 우리 자신을 구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 기후위기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경건생활을 통해 가난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어 즐겁게 가난을 실천해야 한다.

### 구체적인 가난 실천

교회가 먼저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레갑 가문 사람들은 천막에서 생활하였다. 동시대 사람들이 풍요로운 가나안 생활을 하며 타락하였지만, 레갑 가문 사람들은 가난한 천막 생활을 하며 여호와 신앙을 굳게 지켰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부유함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교회 세습이 바로 그러한 사례이다. 교회가 물질적인 유혹에서 벗어나 가난을 선택함으로 교회의 정체성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야 한다.

### 소박한 예배당과 소박한 예배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짓는 일을 중단하자. 크고 화려한 예배당은 건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탄소 배출을 유발한다. 관리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탄소배출이 심하다.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예배를 중단하자. 값비싼 장비, 화려한 조명,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는 예배는 탄소 배출이 심할 수밖에 없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배도 소비의 대상으로 삼는 이들이 많다. 그리고 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더 화려하고 흥미 있는 예배를 만들기 위해 경쟁한다. 이러한 경쟁을 그치고 단순하고 소박한 예배로 돌아가야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 소박한 교회 생활, 에너지 생산, 탄소 흡수

교회 생활에서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고 탄소가 배출된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서, 예배와 친교와 교육에서 창조세계를 더럽게 하고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소박한 생활은 더욱 필요하다.

교회는 소박한 예배당과 예배, 그리고 소박한 생활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일 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기 설치나 나무 심기 등을 통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배출된 탄소를 흡수해야 한다. 특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큰 교회일수록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 탄소 중립을 위한 재정 사용

교회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그 물건이 친환경 제품인지를 여러 가지 면에서 따져보아야 한다. 개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뿐만 아니라 창조세계보전을 위한 선교가 필요한 시대이다. 창조세계를 보전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선교사로 임명하고, '몽골 은총의 숲'처럼 황폐한 곳에 나무를 심는 일에 선교비를 지출하자.

### 가난한 삶으로 초대하기

교회와 그의 지체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감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길을 열고, 그 길로 다른 이들을 초대하자.

## III. 알림 (기후위기 비상 상황을 알림)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던 때에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들은 결국 이유도 모르고 갑작스럽게 망하고 말았다.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로 인해 수많은 동식물이 죽고, 인간의 생명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에 빠져 살고 있다. 현재 우리 삶의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인류의 멸망을 초래한다는 것이 너무 분명한데 많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임명하시면서 장차 임할 재난을 사람들에게 알려 경고하라고 하시면서, 만약 사람들이 경고를 듣지 못해 망하면, 그들이 망하는 책임을 파수꾼인 에스겔에게 묻겠다고 하셨다. 이 시대가 기후 위기 시대임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다. 특히 녹색교회로 선정된 교회들이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기존의 녹색교회들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녹색교회로 선정되었다고 여기면 좋겠다.

아직 기회는 있다. 교회와 인류가 현재 삶의 방식을 바꾸고 가난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면 기후 재앙을 피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녹색교회들이 나서 파수꾼의 역할에 충실하자. 기후위기를 알리고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위한 진정한 복음 전파이다.

### 녹색교회 모집하기

우리들은 먼저 교회들에게 기후 위기 비상 상황을 알려야 한다. 이런 알림을 받고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고자 하는 교회들을 녹색교회로 세우자. 현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공동으로 녹색교회를 선정하는 있는데, 선정 방식을 좀 변경하여, 기후위기 시대임을 깨닫고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성도들과 이웃에게 알리겠다고 다짐하는 교회라면 녹색교회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기후위기 시대임을 깨닫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그들을 통해 한국교회 전체가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탄소중립에 참여한다면 세상이 새로워질 것이다.

### 녹색교회 조직 강화

현재 녹색교회들의 활동이 개별적인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교회들 간의 연대도 아주 느슨하다. 이에 비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너무나 엄중하다. 녹색교회들이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기후위기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 녹색교회들이 연합하여 장로교회의 노회나, 감리교회의 연회 같은 행정 기구를 만든다면 기후위기 시대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 갱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 상황은 우리가 과연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맘몬을 섬기는지를 묻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버리고 가난을 선택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러한 신앙고백을 하는 교회들이 굳게 연대하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그런 신앙을 따라 살아감으로 기후 재앙에 직면한 세계에 복음을 전파해야 하겠다.



한국교회 탄소중립 캠페인

#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탄소중립을 위한 일곱가지 실천으로  
창조세계를 온전히 회복합시다”

생명경제

녹색서재

그린에너지

녹색교통

기후미식

슬로우패션

미니멀라이프

# 기후 미식 (Climate gourmet)

‘기후미식’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강한 식생활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 4:34)

식품의 생산과 운송, 보관, 폐기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육류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전체 탄소 배출의 약 22%를 차지합니다.

우리의 밥상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줄이고  
건강을 살리는 기후 미식을 실천합시다.



## 채식에 참여합시다

- ! **집에서** : 채식에 참여하고 채식을 늘려갑시다.
- ! **교회에서** : 채식 중심의 공동식사를 준비합시다.
- ! **지역사회에서** : 공공급식에서 채식을 확대해 나갑시다.

## 로컬푸드를 확대합시다

- ! **집에서** : 탄소배출이 적은 로컬푸드를 이용합시다.
- ! **교회에서** : 도시·농촌 교회가 로컬푸드 교류에 나섭시다.
- ! **지역사회에서** : 로컬 푸드 매장과 식당 운영을 확대해 나갑시다.

# 슬로우 패션 (Slow fashion)

‘슬로우 패션’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패션 문화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지요” (눅 3:11)

옷을 생산하고 유통, 소비, 폐기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탄소가 배출됩니다.

또한 합성섬유로 만든 옷은 세척과 폐기하는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만들어 집니다.

이제 우리의 옷장을 유행을 따르기 위한 ‘패스트 패션’ 대신 생명의 가치를 입는 ‘슬로우 패션’으로 채웁시다.



## 소박한 옷장을 만듭시다

- ! **집에서** : 친환경적인 옷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합시다.
- ! **교회에서** : 안 입는 옷을 서로 바꾸는 자리를 마련합시다.
- ! **지역사회에서** : 녹색가게 운영을 확대해 나갑시다.

## 재활용(Up-cycling)을 합시다

- ! **집에서** : 수선과 리폼을 생활화 합시다.
- ! **교회에서** : 재활용 정보를 공유하고 안내합시다.
- ! **지역사회에서** : 재활용 공방 운영을 확대해 나갑시다.

# 미니멀 라이프 (Minimal life)

'미니멀 라이프'란 불필요한 소비를 없애 탄소배출을 줄이는 삶입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요 6:12)**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생산, 구매, 소비의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합니다.  
또한 우리가 소비한 물건들은 언젠가는 모두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 덜 사고 오래 사용합시다

- ! **집에서** :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합시다.
- ! **교회에서** : 나에게 불필요한 물건을 서로에게 나눕시다.
- ! **지역사회에서** : 탄소배출이 적은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합시다.

##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에 참여합시다

- ! **집에서** :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이용합시다.
- ! **교회에서** :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다회용품을 준비합시다.
- ! **지역사회에서** : 제로 웨이스트 가게 운영을 확대해 나갑시다.

# 녹색 교통 (Green transport)

‘녹색 교통’이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교통 수단입니다.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막 16:12)

내연기관 자동차는 탄소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도 배출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도 아직까지는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와 수소를 사용하기에 탄소를 배출합니다.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자전거와  
공공교통을 이용하여 탄소배출을 줄입니다.



## 자전거를 이용합시다

- ! **집에서**: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이용합시다.
- ! **교회에서**: 자전거 주차대와 수리함을 설치합시다.
- ! **지역사회에서**: 자전거 편의시설을 확대해 나갑시다.

## 공공교통을 이용합시다

- ! **집에서**: 버스, 기차 등 공공교통을 이용합시다.
- ! **교회에서**: 자동차 없는 날을 정하고 알립시다.
- ! **지역사회에서**: 공공교통 이용을 확대해 나갑시다.

# 그린 에너지 (Green energy)

‘그린에너지’는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적인 재생가능 에너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약 1:17)

오래된 냉난방 기기의 효율을 높이고  
적정한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탄소배출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마트한 에너지 소비자인 동시에  
그린 에너지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되어  
탄소 배출을 줄입니다.



## 에너지 소비를 줄입니다

- ! **집에서** : 냉온열 가전제품을 적절하게 관리합니다.
- ! **교회에서** :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적정 온도를 유지합니다.
- ! **지역사회에서** :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알리고 활성화합니다.

## 햇빛발전소를 설치합니다

- ! **집에서** : 가정과 일터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합니다.
- ! **교회에서** : 옥상, 주차장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합니다.
- ! **지역사회에서** : 에너지 협동조합 운영을 확대해 나갑니다.

# 녹색 서재 (Green library)

‘녹색서재’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문화생활입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싯딤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 41:19)

통신을 통해 데이터가 오가는 과정에서도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가 발생합니다. 불필요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대신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눕시다. 또한 탄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저장하고,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숲을 복원하고 건강하게 가꿉시다.



## 영상을 끄고 책을 봅시다

- ! **집에서**: 핸드폰과 TV 없이 지내는 시간을 가집시다.
- ! **교회에서**: 도서관을 만들고 책 읽는 모임을 만듭시다.
- ! **지역사회에서**: 공공 도서관을 운영하고 확대해 나갑시다.

## 숲을 가꿉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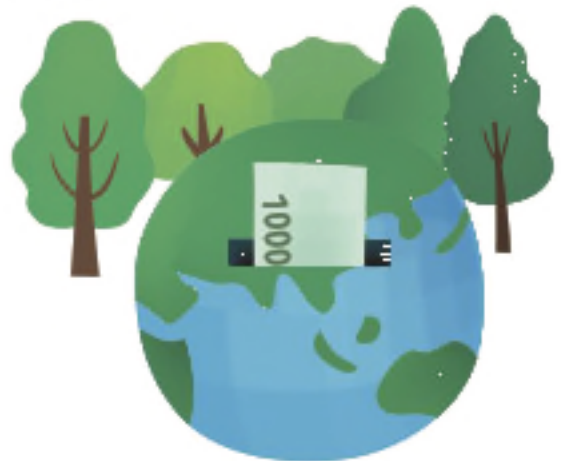
- ! **집에서**: 집과 일터에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합시다.
- ! **교회에서**: 정원을 만들고 숲을 가꾸는 일에 참여합시다.
- ! **지역사회에서**: 숲을 만들고 가꾸는 일을 확대해 나갑시다.

# 생명 경제 (Economy of life)

‘생명경제’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 제도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 30:19)**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녹색 투자를 통해 탄소 배출이 없는 산업을 활성화시켜  
탄소 경제를 생명경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생태적 가치,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 경제를 확장시켜서  
우리 사회의 생태적 전환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 녹색 투자에 참여합니다

- ! **집에서** : 탄소배출이 적은 기업에 투자합니다.
- ! **교회에서** : 자산, 기금을 녹색금융을 통해 운용합니다.
- ! **지역사회에서** : 정의로운 전환으로 건강한 일자리를 만듭니다.

##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 ! **집에서** : 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이용합니다.
- ! **교회에서** : 협동조합을 만들어 선교사업에 활용합니다.
- ! **지역사회에서** :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를 육성합니다.



## 추천 도서 및 자료



### 기후위기 시대, 생태적 전환과 교회 “그린 엑소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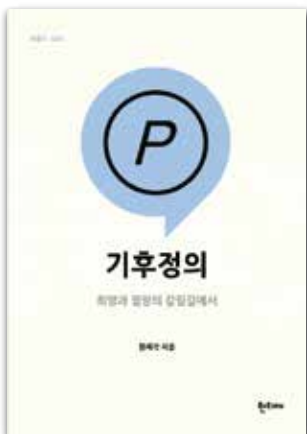
기후위기 비상사태 속에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창조세계의 온전성을 향한 녹색교회 안내서를 출간했습니다. 지구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로부러 창조세계를 회복하고 다음세대에 건강한 지구를 공유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생태신앙 지침서입니다. 한국교회가 생태적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인들의 실천방법을 주제별로 설명했습니다.

글 :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삼원사/ 재생지 인쇄 / 14,000원 / 2020년 11월 13일)

###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사대, “생물다양성에 주목하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상실에 주목해온 한국교회환경연구소는 신학적 성찰을 담은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에 주목하다'를 출간했습니다. 2020년 한국교회 환경교육 1,2차 세미나에 참여했던 연구원들과 생태학자들이 집필에 참여하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한 성찰을 담아, 학술적인 전문자료 보다는 쉽게 읽을 수 있는 신앙서적으로 집필했습니다.

글 : 오충현, 신익상 외 8명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위임)  
(도서출판 대장간/ 10,000원 / 발행일 : 2020년 12월 31일) 이를 수 있는



### 희망과 절망의 갈림길에서 “기후정의”

최근 한국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신기후체제의 서막과 함께 어느때 보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요청이 높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선언의 참 의미를 기후정의(Climate Justice)의 측면에서 다시 성찰하게 하는 “희망과 절망의 갈림길에서 기후정의” 책이 출간 됐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던 한재각 박사가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별로 설명합니다.

글 : 한재각 (도서출판 한티재/ 9,000원/ 발행일: 2021년 2월 27일)